

61 京城都市計劃書概要 경성도시계획서개요

1930년 /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 / 259면 / 08.10-01 조53경 1930

京城府都市計劃要覽 경성부도시계획요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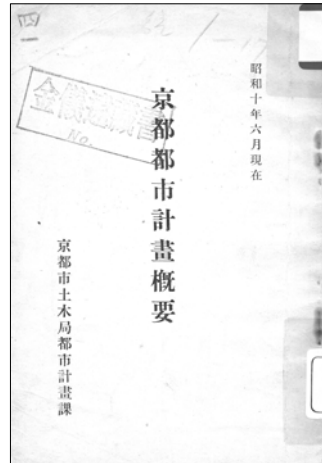
1938년 / 경성부 / 119면 / 02.10-20 경53경 1938

京城風致地區指定資料調查書 경성풍치지구지정자료조사서

1938년 / 경성부 / 65면 / 02.30-22 경53경 1938

大京城座談會速記錄 대경성좌담회속기록

1938년 / 경성부 시계획연구회 / 41면 / 02.10-20 경53대 1938



1930년에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에서 발간한 「京城都市計劃概要(경성도시계획

개요)」는 259면으로 1936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법정계획에 앞서 시구개정(市區改正)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도시계획이다. 계획기간은 1929년~1959년까지의 30년 계획이었다. 내용은 도시계획구역과 지역, 지구제와 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계획과 상하수도과 공원 등 위생시설을 담고 있다.

1938년에 발행한 「京城府都市計劃要覽(경성부도시계획요람)」은 1936년의 ‘조선시가지계획령’ 적용 후의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수록하고 있다. 또한 그 내용을 1:25,000지도에 표시하고 있다. 도시계획 내용은 44면에 불과한데 도시계획자료가 118면이나 첨가되어 도합 162면인 책이다.

경성부(서울시)는 경성부 도시계획조사위원회와 토지구획정리 상담회 및 토지구획정리, 토지평가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였고 이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제정했다.

『京城風致地區指定資料調査書(경성풍치지구지정자료조사서)』는 1938년에 경성부가 발행했는데 부피는 64면에 불과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. 이 책에는 ‘獨立古木(독립고목)’이라 해서 210여 본의 고목이 정리되어 있는데, 그 중에는 수령 600년 짜리도 수두룩하다. 특히 조선총독부 지정 나무가 5본 있는데, 이는 전부 백송(白松)이다. 210여 본의 수목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지 궁금하다. 또한 이 자료집에는 1:25,000지도에 보물, 고적, 천연기념물, 임야공원, 묘지, 채석장 등이 표시되어 있다.

1938년 10월에 경성부에서 개최된 제6회 전국도시문제회의는 일본을 비롯한 만주 등지에서 1천 여 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루었다. 이것을 계기로 경성도시계획연구회(京城都市計劃研究會)는 경성부윤(시장)을 비롯한 경성제국대학, 鈴木武雄(스즈키 다케오) 교수, 총독부 내무국장, 경성 상공회의소 회장, 경기도지사, 大阪(오사카)와 大連(대련) 및 만주에서 온 행정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경성의 미래를 논하였는데, 『大京城座談會速記錄(대경성좌담회속기록)』은 주로 대륙침략정책상 서울의 위치와 위상을 집중적으로 토론한 기록이다. 대륙정책의 중심이 경성이라 전제하고 경인운하(京仁運河)계획까지 들먹이고 있다.